미래선도기술
이슈분석보고서

해외전시회보고서: 최근의 게임시장 동향

(동경게임쇼 2006 보고서)

백성욱 , 동향정보분석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www.kisti.re.kr

Contents

1 서론

2 본론
전시 내용 8

3 결론 25

서론

1 서론

최근 동향 및 전시회 개요

과거 오락실의 아케이드 게임과 하드웨어 중심의 게임이 개인용 PC의 보급으로 인해 PC게임, 콘솔게임으로 발전하였고, 최근에는 네트워크,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모바일, 온라인 게임 등의 형태로 발전하여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
향후에는 이미 PC게임에 일부 적용되고 있는 콘솔게임의 네트워크 기능 탑재, 이동통신, 디지털 방송 등을 융합된 형태의 게임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게임 관련 기술을 보면 그래픽 엔진, 게임서버 엔진, 인공지능 엔진, 물리엔진 기술 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래픽 엔진의 경우 3D화면을 애니메이션과 같이 느낄 수 있도록 짙은 외곽선으로 모델을 그린 후, 쉐이딩으로 빛에 따라 명암을 쉽게 구별하도록 하는 버텍스 샤이더(Vertex Shader)에 바탕을 둔 카툰 렌더링(Cartoon Rendering) 기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게임서버 엔진의 경우 P2P구조(Peer-to-Peer), CS구조(Client-Server), 하이브리드 구조, 분산서버 구조 등이 있는데, 갈수록 네트워크를 통한 참여인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의 분산게임 서버 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래픽과 함께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하여 플레이어가 마치 다른 사람과 상대하며 현실과 똑같은 환경에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인공지능 및 물리엔진 기술이 각광을 받고 있다.

일본에서 열린 동경게임쇼는 140여개 업체와 1,700여개 부스가 배치되어 동경게임쇼 사상 최대 규모의 전시가 펼쳐졌다. 동경게임쇼는 전통적으로 새로운 콘솔 게임기의 발표나 시연이 메인 이벤트가 되어왔기 때문에 비디오 게이머들을 위한 잔치로 인식되어왔다. 그렇지만 몇 해 전 부터는 변화하는 세계 게임 시장의 흐름에 따라 온라인 PC 게임과 모바일 게임의 참여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해 결국 올해에는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이 전체 전시 콘텐츠의 절반 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큰 규모를 이루었다.

지난 5월 열린 E3에서 영상으로만 공개된 플레이스테이션3와 엑스박스360의 신작들이 동경게임쇼에서는 시연 가능한 버전으로 공개되어 게이머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졌다. 동경게임쇼 사상 최대 규모로 전시되는 소니엔터테인먼트는 데빌메이크라이4, 워호크 등 시연 가능한 플레이스테이션3 타이틀 및 PSP 타이틀을 대거 선보였다. 또한 플레이스테이션3와 모바일용 '파이널판타지 13'를 공개하는 Square Enix를 비롯해 Konami, Capcom, Sega, Bandai-Namco Games 등 대형 게임사들과 온라인 게임의 비중이 늘어난 까닭에 한국 게임 기업인 사이칸, NHN재팬, 에오위즈 재팬, 한게임 그리고 한국공동관을 만나 볼 수 있었다.

이번 동경게임쇼에서는 Wii, Xbox360, 플레이스테이션3 등 3대 차세대 게임기의 치열한 격전이 벌어졌던 지난 E3와는 달리,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린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3가 가장 큰 주목을 받았다. 특히 영화관을 설치해 앞으로 플레이스테이션3에서 출시할 게임들을 마치 영화 예고편처럼 관중들에게 홍보한 부분이 본 전시회의 모든 전시를 통해 가장 큰 눈길을 끌었다. 전시된 게임 제품들을 다음과 같은 장르로 나누어 소개하고, 각 장르별로 동향 및 특징들을 소개한다.

a) 콘솔게임

플레이스테이션, 엑스박스, Wii 등과 같이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전용기기를 TV혹은 컴퓨터 모니터에 연결하여 즐기는 게임으로 게임전용 기기를 사용하므로 그래픽이나 음향, 게임 전개 등이 매우 우수하다.

최근 가정용 게임기의 대기업 제조사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데 Square Enix의 통합에 이어 2004년 5월에는 Sega-Sammy의 통합, 이듬해인 2005년에는 Bandai-Namco, 또 인덱스 산하에 타카라-토미의 통합이 발표되었다. 이러한 통합 경향과 함께 대규모 자본을 투입한 대작과 저액다작의 소프트웨어로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그 평균은 2001년에는 플레이스테이션2용으로 1억 2,300만 엔이었던 것이 2003년에는 3,900만 엔까지 떨어졌다.

b) 휴대용게임(차세대기기)

2004년 말, 닌텐도 DS와 소니 PSP, 이 2가지 휴대용 게임기가 발매되어 화제가 되었는데 당초 소프트웨어의 타이틀이 적다는 점이 우려되었으나 점차적으로 소프트웨어가 개발되면서 높은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하드웨어 제조사는 이미 거치형 게임기에 인터넷 접속 기능을 부여하였으며 DS, PSP도 무선랜 기능을 가진다. 차세대 기기로는 닌텐도가 과거의 게임 소프트웨어를 모두 다운로드할 수 있는 제품을 발표하는 등 차세대 가정용 게임은 온라인과 융합되어가고 있다.

c) 모바일게임

이동통신 기기(핸드폰, PDA, 팜 PC 등)를 통해 즐기는 게임으로 시간,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특징이 있다. 모바일게임은 이동통신기기의 소프트웨어를 단말기에 번들하는 것, 다운로드하는 것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액세스하는 RPG, 대전형 게임 등이 가정용 게임을 휴대폰용으로 맞춤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콘솔 게임기와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며 쌓아온 경험과 다양한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 덕분에 휴대폰 용 모바일 게임 분야에서도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게다가 무엇보다 단순한 조작 방식 때문에 일견 비슷해 보이는 게임들이 즐비한 모바일 게임 시장에 콘솔 인기작들을 퍼블리싱 함으로써 콘텐츠의 질과 양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타이틀이 늘어가고 있다. 또 단말기에 따라 모바일용 3D 가속 코어를 탑재하고 있는 모델도 늘어나 그래픽상으로는 게임의 질을 향상시키나 버튼의 배열이나 키 조작 감의 문제로 휴대폰으로 재미를 느끼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블루투스를 이용한 근거리 네트워크 대전 기능까지 갖춘 타이틀도 있었다. 하지만 모두 기본적으로 게임을 즐기는 도구가 전용 컨트롤러가 아닌 휴대폰이기 때문에 게임의 질을 향상시키는 문제는 한계가 있다.

d) 아케이드게임
오락실이나 테마파크 등에 설치하여 동전을 넣어 즐기는 형태의 게임으로 타 게임과는 달리 하드웨어 판매 중심의 고가시장을 이루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성인용 게임으로 바다이야기가 사회에 문제를 일으켰는데, 일본이나 영국 등에서는 게임 및 오락 등이 사회 전반에 걸쳐 문화적으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e) 온라인 게임
온라인상에서 클라이언트가 통신망을 통해 호스트 서버에 접속, 다수의 유저가 실시간으로 행하는 게임으로 네트워크를 통해 많은 유저들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온라인 게임 소프트웨어는 세계적인 흐름이며 가정용 게임기의 소프트웨어/하드웨어와 온라인 서비스가 융합되고 유통의 경우에도 점포에서의 패키지 판매/서비스, 온라인을 통한 판매/서비스가 조합될 전망이다. 이번 동경게임쇼에서 대한민국 온라인 게임들이 크게 선전하고 있다. NHN 저팬의 '한게임'과 네오위즈 저팬, 사이칸, 넷타임소프트 등과 '팡야'나 '워록' 같은 한국 게임들이 테크모와 같은 일본 퍼블리셔를 통해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홍보를 하여 한국의 온라인 게임 산업 시장을 발전시키고 있다.

f) PC게임
CD형태로 출시되어 이를 구입한 유저들이 자신의 컴퓨터에서 즐기는 게임으로 대부분이 완결된 스토리를 혼자 PC에서 플레이하는 형태다.

본론

2 전시 내용

2 본론

1. 전시내용

가. 콘솔게임

(1) Sony 플레이스테이션3
소니는 올해 11월 차세대 가정용 게임기 '플레이스테이션 3(PS3)' 출시를 앞두고 플레이스테이션3용으로 27종 이상의 게임과 35종 이상의 게임 영상을 공개했다. 이모션 엔진을 사용한 전용 CPU를 장착해, 영상처리 속도가 빠르다. 또, CD와 DVD를 동시에 사용해 통신망이나 디지털 가전제품과도 연결이 가능하고, CA 텔레비전 망을 통해서도 게임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1) Afrika
이번 동경게임쇼 '플레이스테이션3 시어터'를 통해 PS3 타이틀 `AFRIKA(가제)`의 영상이 공개되었다. 장대한 아프리카 대륙을 배경으로 다양한 동물들의 모습이 살아 있는 듯 생동감 있게 그려지고 기존의 아프리카 대륙의 모습이나 동물들이 나오는 애니메이션 보다, 더 정교하고 섬세한 배경 화면과 동물들의 움직임들이 연출되었다. 아직 어떤 종류의 게임인지 알려지지 않아 게이머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마지막 영상 화면을 통해 사파리용 차의 모습이 등장해 더욱 게임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플레이스테이션3 시어터'를 통한 영상물 공개이기 때문에 대화면 프로젝터와 5.1채널 사운드 시스템의 화려한 영상과 웅장한 사운드를 즐길 수 있었지만, 이 게임을 플레이스테이션3로 플레이 한다면 이러한 비주얼적인 면이 얼마만큼 게임의 즐거움에 직접적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으로 남았다.

그림1-1. AFRIKA의 스크린 샷

2) Gran Turismo HD
가장 사실적인 레이싱 게임으로 평가받는 이 게임은 플레이스테이션3에 이르러 플레이스테이션2에서는 지원되지 않았던 다양한 차량의 종류와 레이싱 코스들이

더하여져 게임의 단계를 한층 올려놓았다고 평가 받았다. 이번 게임쇼에서는 체감형 시설과 기존 컨트롤러의 2가지 방법으로 시연을 할 수 있었는데 더욱 사실적인 그래픽과 사운드로 게이머들에게 레이싱의 스피드 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줌으로서 유저들의 기대감을 충족시켰다. 하지만 배경화면과 레이싱 카의 그래픽은 더욱 정교해졌는데 반해, 아직 코스 주위 사람들의 모습과 움직임은 부자연스러워 보여 전체화면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모든 배경이나 물체들의 그래픽 처리를 실사처럼 하기에는 아직도 하드웨어 상에 한계가 남아 있는 듯하다.

그림1-2. GRAN TURISMO HD의 스크린 샷

3) The Eye Of Judgment

새로운 형식의 게임으로 눈길을 끈 이 게임은 상단의 카메라가 비추고 있는 판에 카드를 올려두면 화면에 그 카드에 그려진 캐릭터가 3D 그래픽으로 나타나 싸움을 하는 새로운 방식의 게임이다. 3D 그래픽으로 나타난 캐릭터를 손가락으로 건드리면 캐릭터가 위협을 느끼고 불을 뿜어 경계하는 등 즉각적인 반응을 하는데, 그 움직임이 세밀하고 정교하여서 보는 이를 놀라게 하였다. 이번 게임쇼에는 부스에 올라가 카메라 앞에서 직접 카드를 골라 대전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어 많은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카드를 선택할 때마다 케이블을 달아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카드의 종류도 다양하지 않아 아쉬웠다. 또한 게임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주변기기들이 필요해 가격적인 부담이 커 보이고 이 시스템을 이용한 다른 게임들이 없기 때문에 아직 통용화 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였다.

그림1-3. THE EYE OF JUDGMENT의 스크린 샷과 게임 하는 장면

4) Ridge Racer 7

전편에서 그저 달리기만 했던 것과 달리 Gran Turismo나 프로젝트 고담 레이싱과 비슷한 게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1위만 노렸던 레이싱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조건을 충족해야만 클리어할 수 있는 새로운 레이싱 모드가 추가되어서 기존의 레이싱게임과는 차별화를 했다. 실제 차량이 등장하지 않는 것도 이 게임이 차별화되는 점이다. 또, 개발팀에서 개발하는 오리지널 차량 2개가 추가되었다. 단지 막연한 플레이어와 플레이어의 대전만이 아니라 소규모의 대회를 열고, 플레이어들을 초청해 대전을 가지는 것도 가능하여 플레이어의 재미를 한층 더 증가시켰다. 그러나 최다 참가가능 플레이어수는 14명까지인데 모든 유저가 원활한 게임을 할지는 의문이다. 그리고 화면분할모드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플레이스테이션3가 두 개의 디스플레이어를 지원하는 것을 이용한 화면 분할일지는 출시가 되면 알 수 있겠다.

그림1-4. Ridge Racer 7의 스크린 샷

5) 기타 게임 타이틀
- Coded Arms Assault (Konami)
- Mahjong Kakutou Club
- Mahjong Fight Club (Konami)
- Metal Gear Solid 4: Guns of the Patriots (Konami)
- Power Smash 3 (aka, Virtua Tennis 3) (Sega)
- Armed Core 4 (Sega)
- Mobile Suit Gundam: Crossfire (Kidou Senshi Gundam: Target in Sight) (Bandai Namco)

(2) MicroSoft 엑스박스360

미국 마이크로소프트가 개발한 가정용 비디오게임기로 온라인서비스는 물론 MP3 플레이어 같은 휴대용 디지털 기기와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게임업계에서 컨버젼스(Convergence)의 시대를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1) Gears of War

'기어스 오브 워'는 XBOX, XBOX360의 간판타이틀 '헤일로'에 도전하는 에픽 게임즈의 SF FPS 게임이다. 게임은 인간과 인간의 전쟁, 인간과 그들을 학살하는 땅 속 생명체 로커스트들과의 전쟁 등 배경부터 범상치 않은 이 게임은 화려한 게임그래픽은 물론, 잠입의 요소를 가미한 전략적인 게임진행, 잔인하리만치 사실적인 괴물과 이벤트 연출이 보는 이로 하여금 기대를 하게 한다. 분대지휘가 등장하는데 게이머는 자신이 홀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지만, 대원들에게 명령해 더 복잡한 작전도 펼칠 수 있게 하는 게임요소다. 게임은 주변 엄폐물의 크기, 내구도, 위치 등을 이용해 효율적인 전투를 펼치도록 대원들의 AI를 구현해 이전과는 또 다른 분대전투를 제공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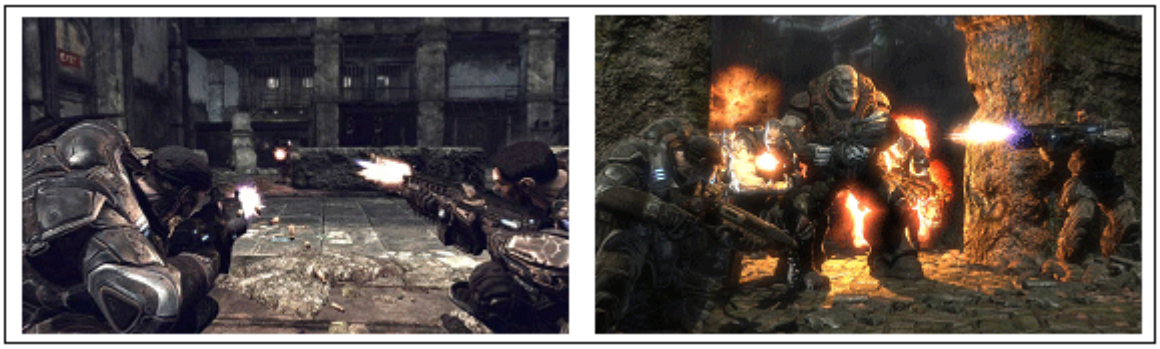

그림2-1. GEARS OF WAR의 스크린 샷

2) Bio Hazard 5

플레이스테이션3와 엑스박스360 두 차세대기로 발매될 예정인 바이오 하자드 5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무대의 분위기가 한결 밝아진 것이다. 전작에서는 확 트인 배경을 통해 폐쇄적인 시리즈 분위기를 개방적으로 바꿔놓았지만, 어두운 이미지까지는 지울 수 없었다. 하지만 바이오 하자드 5는 눈부실 정도로 강렬한 태양광선과 타는 듯한 사막지대를 통해 전작보다 더 밝은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두운 곳에서 튀어나와 깜짝 놀라는 것이 아닌, 대낮에 노골적으로 다가오는 좀비들에게서 죄여오는 공포를 느낄 수 있겠다. 이 게임에서 관심 있게 볼 부분은 등장인물, 스토리라인, 밝은 분위기에서의 공포유발요소 등 전작과의 차별화된 모습들이다.

그림2-2. BIO HAZARD 5의 스크린 샷

3) Lost Planet Extreme Condition

국내 영화배우 이병헌을 모델로 한 Capcom의 새로운 액션게임이다. 이미 데모를 통해 호평을 얻은 'Lost Planet Extreme Condition'은 혹독한 추위에서 살아남기 위한 인류와 외계생명체 '에이크리드'와의 싸움을 다룬다.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잠시나마 추위를 이겨낼 수 있는 '열자원'을 확보해야한다. 에이크리드에 의해 아버지를 살해당한 '웨인(이병헌)'이 그의 잃어버린 기억과 얼어붙은 세계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이 이 게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또, 다양한 적과 무기가 등장하는데 떼를 지어 민첩하게 웨인을 공격해오는 괴물이 있는가 하면, 화면을 가득 차지해 주인공을 상대적으로 왜소하게 만드는 거대로봇까지 등장하고 각각의 적들은 위력과 연사속도가 다른 여러 무기들로 공격하게 된다.

그림2-3. Lost Planet Extreme Condition의 스크린 샷

4) 기타 게임 타이틀
- MotoGP'06 (THQ)
- SmackDown vs. Raw (THQ)
- The Outfit (THQ)
- Vampire Reign (AQ Interactive)
- A Ressha de Gyouku HX (Artdink)
- Dead Rising (Capcom)
- Operation Darkness (Success)
- Project Sylpheed (Square Enix)
- Tomb Raider Legend (Eidos)
- X-Men The Official Game (Spike)
- Prey (Spike)
- Sonic the Hedgehog (Sega)
- Chikyuu Boueigun X (D3)
- Fuzion Frenzy 2 (Hudson)
- Super Robot Taisen XO (Banpresto)
- Tenchu Senran (From Software)
- Dead or alive Xtreme 2 (Tecmo)
- Forza Motorsport (Microsoft)
- Viva Pinata (Rare)
- Riot Act [Crackdown] (Microsoft)

- Rockstar Games presents Table Tennis (Microsoft)
- Winning Eleven Series (Konami)
- Full Auto (Sega)
- Tomb Raider Legend (Sega)
- The Outfit (Sega)
- Operation Darkness (Sega)
- Culdcept Saga (Bandai Namco)
- Mobile Ops: The One Year War (Mobile Suit Gundam: Operation Troy) (Bandai Namco)
- The Idolmaster (Bandai Namco)
- Trusty Bell: Chopin's Dream (Bandai Namco)

(3) Nintendo Wii

닌텐도는 게임큐브의 뒤를 이을 게임기 개발에 앞서 자사의 듀얼 스크린 휴대용 게임기인 DS의 몇몇 특징들을 Wii의 설계에 포함시켰다. Wii의 특징은 독특한 컨트롤 시스템을 갖췄다는 것이다. 이번 동경 게임 쇼에서는 닌텐도 제품들이 많이 전시되지 못했는데, 지난 E3 쇼에서 각광을 받았던 Red Steel 을 추가로 소개한다.

1) Red Steel

새로운 컨트롤러에 따라 게임의 디자인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임타이틀이다. 닌텐도의 Wii의 새로운 컨트롤러 기능은 게임의 흥미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게임 층에 접근 하였는데 Wii의 새로운 컨트롤러의 등장으로 이러한 게임이 나올 수 있었다. 이 게임은 Wii의 두 가지 컨트롤러를 사용해 칼, 총 등 다양한 무기를 자유자재로 사용하여 유저들이 더욱 게임에 몰입할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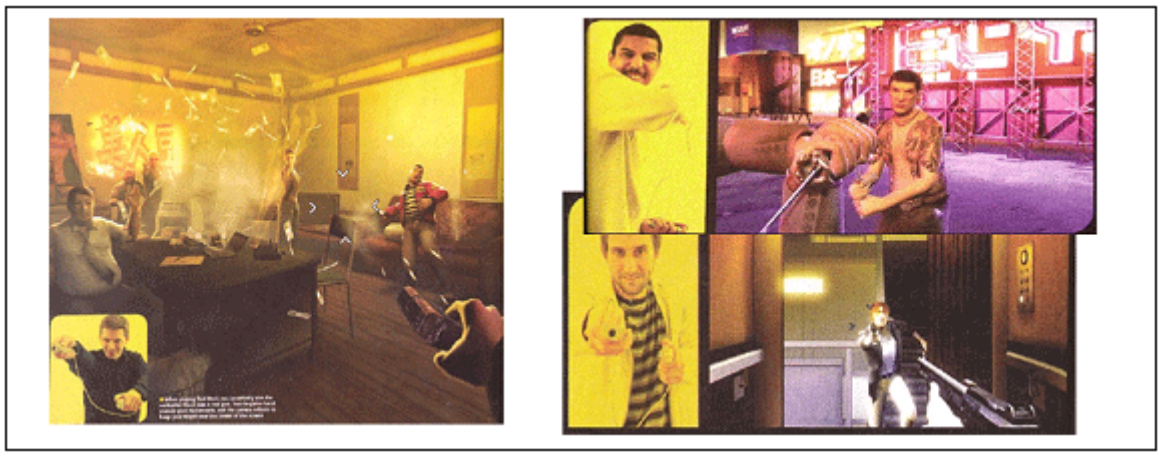

그림3-1. RED STEEL의 스크린 샷

2) Elebits
가상현실 공간에서 벌어지는 두뇌싸움 'Elebits은 우리가 보통 생활하고 있는 현실 세계를 리얼하게 재현한 가상현실 공간이 그 무대이다. 게이머들은 리모컨을 사용해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 'Elebits'의 궁극적인 목표는 'Elebits'라고 하는 요정 같은 캐릭터를 잡아내고, 캐릭터를 잡기위해서는 Wii의 두 가지 컨트롤러를 통해 스테이지내에 배치된 것을 치우거나 장치를 해제하면서 숨어있는 'Elebits'를 찾아 내야한다. 화면상에는 항상 플레이어가 소지하고 있는 수수께끼 아이템의 조준선이 표시되며 게이머들은 Wii의 컨트롤러을 상하좌우로 움직여 'Elebits'를 공격, 포획할 수 있다. 여담으로 많은 이들이 이 게임처럼 포인팅을 하는 타이틀은 컨트롤러의 움직임으로 유저가 피로해 지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ELEBITS'을 개발한 프로듀서 무카타오씨는 처음에는 공중에서 하겠지만 점차 익숙해지면 무릎위에 놓고 사용하여 더 편해질 것이라는 대답을 주었다.

그림3-2. ELEBITS의 스크린 샷

3) Rayman Raving Rabbids
이번 게임 컨벤션에서 Wii의 발표회에 대한 반응은 엇갈리고 있지만, Ubisoft는 Wii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주려 하는 입장이다. '레이맨 Raving Rabbids'가 비공개적으로 플레이 가능한 상태로 등장하고 이것은 Wii의 서드파이 타이틀 중 가장 강력한 타이틀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여주었다. '레이맨 Raving Rabbids'는 약 10개 정도의 타이틀을 구성하는 미니게임이 있는데 그 중에는 눈부시게 멋진 해변에서 토끼들을 1인칭 슈팅모드에서 잡으러 다니는 것도 있었고, 엉뚱하기 짝이없는 토끼들이 들어가면서 열리는 화장실 문을 닫는 게임도 있었다. 미니게임들은 4개의 타입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FPS타입이 있는데 FPS보다는 플레이어가 레일위에서 자동으로 움직이고 토끼들을 조준하여 쏘는 것이기 때문에 건슈팅게임에 가까운 미니게임이 있고, 두 번째로 Trials타입은 두더지 잡기식의 토끼잡기 게임이 있었다. 세 번째로 Races타입 중에는 앞으로 자동으로 가게 되어있어 하늘위의 구름 후프속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할 때 왼쪽 오른쪽으로 위모트를 움직이거나, 넌챠쿠 컨트롤러를 재빠르게 위 아래로 재끼면서 트랙 위를 이동하는 것도 있었다. 마지막으로 Dance게임들은 그냥 타이밍에 맞게 위모트와 넌챠쿠를 흔들고 당겨주면 양 옆에서 돌진하는 토끼들과 춤을 추게 된다.

이 미니게임들은 재미를 주기위한 부가적인 요소들인데 레이맨이 토끼들에게 잡혀 다양한 미니게임들을 통해 그들을 감탄시킨다는 것이 스토리모드의 설정이며 이것의 완성도와 프레젠테이션이 그냥 단순한 미니게임 모음으로 남을지 아니면 더 뛰어난 게임이 될지는 게임이 출시되면 유저들이 판단하겠다. '레이맨 Ravin Rabbids'는 Wii 전용으로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이 게임은 무엇보다도 재미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컨트롤 방식으로 진행되기 힘들고 미니게임들이 위모트 중심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d-pad나 아날로그 스틱으로 플레이하기 위해 다른 기기 버전에는 컨트롤 방식이 크게 달라져 Wii가 아닌 다른 기기에서는 흥미요소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겠다.

그림3-3. Rayman Raving Rabbids의 스크린 샷

4) 기타 게임 타이틀
- Ant Bully
- Avatar: The Last Airbender
- Barnyard
- Bleach Wii(Sega)
- Call of Duty 3
- Cars
- Chicken Little: Ace in Action
- Excite Truck
- Far Cry Vengeance
- The Grim Adventures of Billy & Mandy
- Legend of Zelda: Twilight Princess
- Madden NFL 07

- Marvel: Ultimate Alliance
- Need for Speed Carbon
- Open Season
- SpongeBob SquarePants: Creature from the Krusty Krab
- Tom Clancy's Splinter Cell Double Agent
- Tony Hawk's Downhill Jam
- Trauma Center: Second Opinion

나. 휴대용 게임

(1) Sony PSP

1) Home Star: 21st Century Navigator
이 타이틀은 게임이 아닌 별을 가상체험하게 해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별을 보면서 별자리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게다가 별자리만이 아니라 일식, 월식 등에 대한 정보도 공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별과 행성에 대한 공부를 편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또, 단순하게 별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있는 곳은 물론 자신이 원하는 곳의 하늘의 별까지 감상할 수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지만 도쿄나 파리, LA 등의 하늘의 별까지도 감상할 수 있고 앞으로 펼쳐질 개기월식이나 혜성도 미리 감상할 수 있고 과거의 하늘도 볼 수 있다. 과거의 하늘을 보면 그 시대에 등장했던 만리장성 같은 건축물, 빙하기 때의 공룡 따위의 생물들도 등장하고 지구에 헬리 혜성이 왔을 때의 하늘 등, 보는 이들이 별만 나오는 따분한 프로그램이라고 여기지 않게 하는 요소도 있다.

그림4-1. HOME STAR: 21st Century Navigator의 스크린 샷

2) Fish Eyes Portable
자연 속에서 낚시를 즐기는 「FISH EYES 」시리즈의 최신작이다. 3D 그래픽스로 표현된 계류나 호수, 연못 등의 자연이 아름다운 필드에서, 담수어의 낚시를 즐길 수 있다.

필드는, 시간이나 기후, 계절 등의 변화를 비주얼적으로 재현했고 강의 시냇물소리 등 음향 면에서도 자연을 재현하여 사실감을 부여했다. 게임에 등장하는 물고기는 야마메나 트라우트, 이와나 등 전부 22종이 있다. 기본적으로는 낚시를 즐기기 위한 게임이지만, 낚시 마스터의 노인이 과거에 끌어 올릴 수 없었던 금빛에 빛나는 미국산 담수어를, 노인을 대신해 끌어 올린다고 하는 스토리도 준비되어 있다. 또, 에드혹크 모드에 대응해, 두 사람으로 통신 대전할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서 다양한 재미를 부여하기 위한 요소도 보인다.

그림4-2. FISH EYES PORTABLE의 스크린 샷

3) Silent Hill Origins

게임의 내용은 사일런트 힐 1편의 전이야기에 해당된다. 주인공의 이름은 Travis O'Grady, 트럭 운전수로 언제나 가는 길을 가던 도중 우연히 사일런트힐에 들어가게 되고 사일런트힐에서 탈출하는 것이 게임의 목적이다. 그 외에 등장인물은 1편의 주요인물인 앨리사(Alessa), 달리아(Dahlia), 코푸만(Kaufmann) 박사로 큰 변화는 없었다. 1편과는 분리된 다른 게임이지만 1편에 나왔던 몇몇 중요 요소가 등장하기도 한다. 1~4편까지 플레이한 팬들은 상당한 내용을 모두 알고 플레이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번 게임을 제작했다고 하는데 되도록 게임을 제작하면서 1~4편과 연관이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게 제작하고 있다고 했다. 시점은 3인칭 어깨 시점이나 이 시점으로 계속 진행되는 것은 아니고 특정 상황에서는 화면에 표시되는 특정 버튼을 누르는 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다. 퍼즐을 풀 때는 작은 스크린이 하나가 떠서 더욱 자세한 모습을 볼 수 있게 했다. 배경 디자인은 전작의 것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지만 새로운 것도 있다. SLEEP모드에도 잘 대응되도록 하고 있으며 세이브도 많은 장소에서 가능하게 했다. 휴대용이다 보니 아주 밝은 대낮에 야외에서 플레이하는 경우도 생기는데 이럴 경우 게임 분위기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힘들다는 게 단점이다.

그림4-3. Silent Hill Origins의 스크린 샷

4) 기타 게임 타이틀
- Mahjong Fight Club Zenkoku Taisen Version
- Mahjong Fight Club National Competition Version (Konami)
- Metal Gear Solid Comic strip
- Metal Gear Solid Portable Ops (Konami)
- Metal Gear Solid Bande Dessinee (Konami)
- World Soccer Winning Eleven 10 Ubiquitous Evolution (Konami)
- (Konami)
- Ore no Dungeon: Desire and Adventurous Spirit (Sega)
- Sony Computer Science Kenkyuushitsu Kenichiro Mogi Hakase Kanshuu No ni Kaiketsu Aha Taiken! (Sega)
- Lost Regnum (Sega)
- Gundam Battle Royal (Bandai Namco)
- Gunpey Reverse (Bandai Namco)
- Ace Combat X: Skies of Deception (Bandai Namco)
- Tales of Phantasia: Full Voice Edition (Bandai Namco)
- Tales of the World: Radiant Mythology (Bandai Namco)
- Ridge Racer 2 (Bandai Namco)
- Bounty Hunters (Bandai Namco)
- Blocks Club Portable with Bumpy Trot
- Fish Eyes Portable
- Pilot Academy
- Valhalla Knights

(2) Nintendo DS

1) Castlevania: Portrait Of Ruin (Akumajo Dracula: Gallery of Labyrinth) (Konami)
「악마성 드라큘라 창월의 십자가」의 속편에 해당되는 「Castlevania: Portrait of Ruin」을 정식으로 발표했다.
본 작의 특징은 마법의 능력을 가진 Jonathan Morris와 Charlotte Orlean의 2사람의 소녀를 조작하고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다. 「악마성 드라큘라」는 액션 장르의 우월성과 혁신의 표준적이라고 평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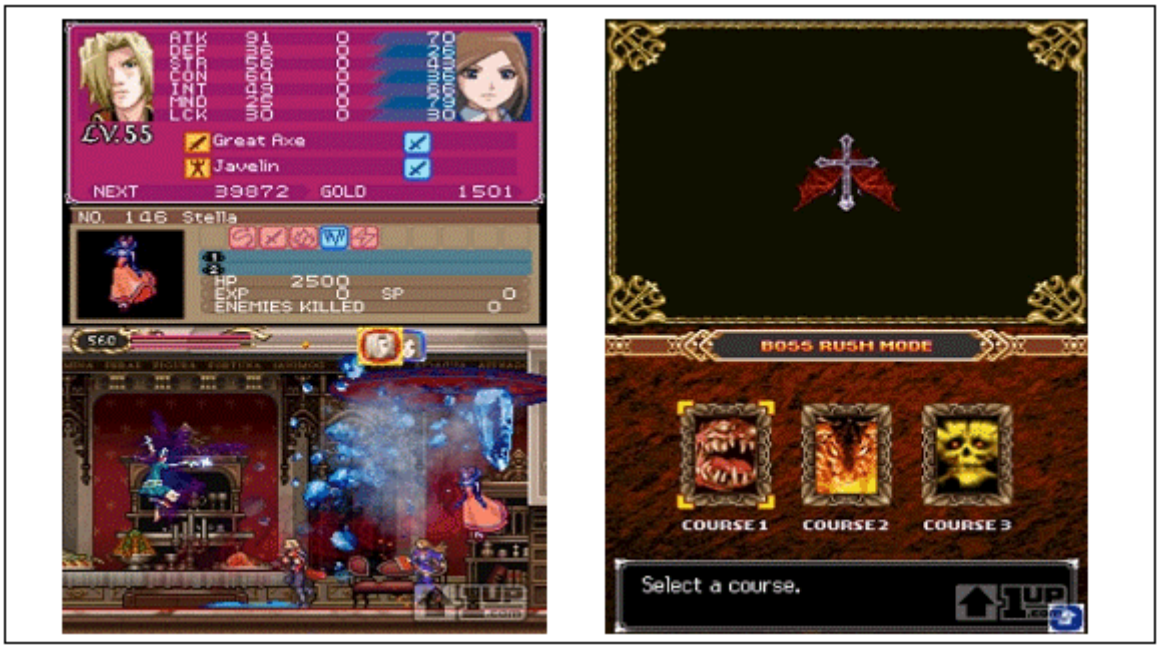

그림5-1. Castlevania: Portrait of Ruin의 스크린 샷

2) Guilty Gear Dust Strikers
'길티 기어' 시리즈의 속편에 해당하는 타이틀이다. 듀얼 스크린을 왕래하며 최대 4명으로 싸울 수 있는 2D 격투 게임이 되어 있다. 캐릭터 셀렉트 화면에서는 21명의 캐릭터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지만, 새로 등장한 캐릭터는 없었다. 현재는 버튼과 거리의 한 방향의 조합만으로 필살기가 나오는 낮은 사양이다. WiFi 서비스에 의한 통신 대전도 실행될 예정이다.

그림5-2. GUILTY GEAR DUST STRIKERS의 스크린 샷

3) 기타 게임 타이틀
- Mahjong Fight Club (Konami)
- Power Pro-Kun Pocket 9 (Konami)
- Lunar Knights (Bokura no Taiyou: Django & Sabata) (Konami)
- World Soccer Winning Eleven (Konami)
- Otogi Juushi Akazukin (Konami)
- Survival Kids: Lost in Blue 2 (Konami)
- Shin Sangoku Musou (Sega)
- Bleach DS 2nd (Sega)
- Nounenrei: Nou Stress Kei Atama Scan (Sega)
- Oshare Majo Love and Berry DS Collection (Sega)
- Black Jack (Sega)
- Pinky Street Kira Kira Music Hour (Sega)
- Tank Beat (Sega)
- Gintama DS: Yorozuya Daisoudou (Bandai Namco)
- Oto wo Tsunagou! Gunpey Reverse (Bandai Namco)
- Tales of The Tempest (Bandai Namco)

(3) 휴대용 게임 (NTT 도코모, KDDI, 보더폰)

- Power Pro World Wireless (Konami)
- Quiz Magic Academy Wireless (Konami)
- Dr. Kawashima Training Title Wireless (Bandai Namco)
- Tales of Valhite Wireless (Bandai Namco)
- Mojiriusu Wireless (Bandai Namco)
- Noroichan Wireless (Bandai Namco)
- Tsuushin Taisen: Mojipittan Wireless (Bandai Namco)
- Ridge Racer Wireless Battle Wireless (Bandai Namco)
- Mobile Suit Gundam: Space Assault Wireless (Bandai Namco)

다. 아케이드 게임

- Mahjong 5 Arcade (Konami)
- Winning 11 2006 Arcade Championship Arcade (Konami)
- Pop'N Music Fever 14 FEVER! Arcade (Konami)
- Dance Dance Revolution SuperNova Arcade (Konami)
- Beatmania IIDX14 GOLD Arcade (Konami)
- Guitar Freaks V3 & Drum Mania V3 Arcade (Konami)

라. PC 게임

(1) Busou Shinki (무장신희 온라인)

Konami디지털엔터테인먼트가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무장신희 온라인'은 피규어와 온라인 캐릭터의 데이터가 연동되는 독특한 형식의 온라인대전 액션게임이다. 엄밀히 말하면 피규어에 동봉된 '액세스 코드'를 사용해 온라인상에서 자신의 캐릭터를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개념이다. 눈앞에 있는 피규어의 복장 그대로 게임을 즐긴다면 이제까지와는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참신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온라인게임으로 기대가 큰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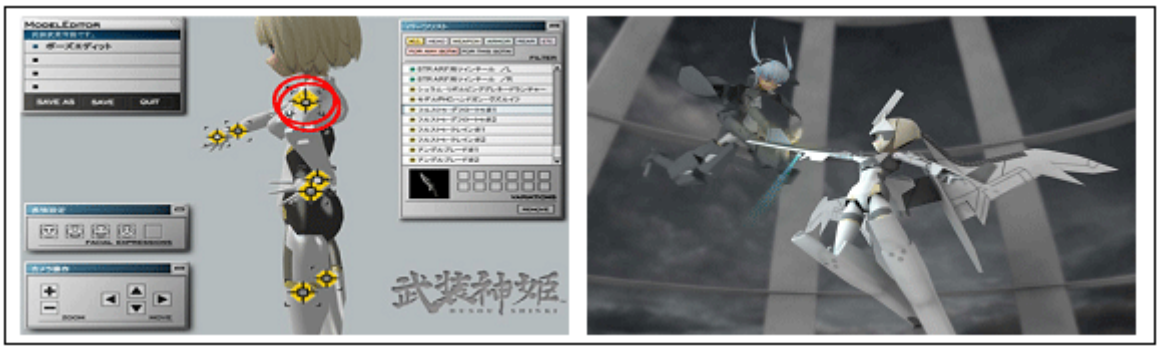

그림6-1. Busou Shinki의 스크린 샷

(2) 진 삼국무쌍 BB

국내 온라인게임 '일기당천', '창천' 등과 개발시기가 맞물려 새로운 정보가 공개될 때마다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게임으로 플레이스테이션2에서 PC로 넘어왔을 뿐 기존 시리즈의 특징은 그대로이다. 단, 콘솔게임에서 적장을 잡는 것이 중심이었던데 반해, 이 게임은 거점 확보를 중심으로 한다. 전투는 온라인대전방식으로 이뤄지는데 최대 4대4 대전까지 지원할 예정이라고 9한다. 그 밖에 실시간으로 무기를 강화, 랜덤슬롯을 통해 속성을 결정하는 무기시스템도 주목할 만하고 국지전의 승패에 따라 등장인물들의 감정표현도 다양하게 이뤄진다.

그림6-2. 진 삼국무쌍 BB의 스크린 샷

(3) 기타 게임 타이틀

- Tokimeki Memorial Online PC (Konami)
- Gundam Online: Dawn of Australia PC (Bandai Namco)
- Hellgate: London PC (Bandai Namco)

결론

제3장 결론

이번 게임쇼에서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이 전체 전시 컨테츠의 절반을 차지, 앞으로의 게임시장의 동향을 살필 수 있었다. 하지만 비쥬얼적인 화려함을 내세운 차세대 콘솔게임의 위력은 아직까지 유저들의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 기획적인 측면과 디자인의 강조는 계속되는 게임시장의 방향으로 느낄 수 있었다. 최대 부스를 차지하며 가장 주목을 받은 소니의 PS3는 다양한 게임들을 선보였는데, 애니메이션인지 게임인지 구분이 잘 안될 정도로 화려하고 사실적인 그래픽들은 색감 등을 통하여 더 리얼리티적인 측면을 강조하였다. 또한, 게임 스토리의 구성, 배경의 다양화 등 게임 기획적인 측면들도 더 다양화되고 풍성해져 유저들이 게임 속의 인물들에 더 동화될 수 있는 측면들이 시도되어 졌음을 볼 수 있었다. 그러므로 내년부터 게임 전시회의 규모를 벗어나 영화와 애니메이션 제품들과 함께 전시되는 계획이 자연스러운 추세가 아닌가 싶다.